

# 勿齋 安義의 家系와 『壬癸記事』 研究

— 안의의 墓碑와 『임계기사』를 중심으로 —

이 용 찬(전북대)

## <목 차>

1. 서론
2. 勿齋 安義의 碑文과 家系 분석
3. 『壬癸記事』의 價値와 선비정신 분석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읍의 선비 물재 안의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스승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유지를 받들어 정치적으로는 유례없이 소외되었던 전북 정읍 지역에 살면서도 八勿箴의 절대적 수행덕목을 만들어 스스로 동문수학 하던 동문 손홍록(孫弘祿)과 함께 개인재산을 털어 선비들이 나아가야 할 자세를 실천했던 역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진안씨(耽津安氏)인 안의(安義)의 휘(諱)는 의(義)이며 아명(兒名)은 충렬(忠烈), 자는 의숙(義塾), 물재(勿齋)는 호(號)다. 중종(中宗) 24년인 기축년(己丑年, 1529) 12월 6일 태인(泰仁) 고현내(古縣內)에서 태어났다.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스승의 유지(幽志)에 따라 임진년(壬辰年)에 왜구가 들이닥쳐 도성이 무너지고 임금이 달아나자 손홍록(孫弘祿)과 함께 의병과 식량, 옷을 모집하고 스스로 의곡계운장(義穀繼運將)이 되어 쌀 삼백석과 비단과 포 등 여러 물품을 모아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에 수송하고

반은 세 곳의 의병진영(義兵鎭營)으로 보냈다.

이후 안의는 손홍록과 함께 전주 경기전의 태조(太祖) 어용(御容)과 선대의 『조선왕조실록』을 우마 30여 마리에 받들고서 정읍 내장산 용굴암(龍窟庵)에 이안(移安)하여 이듬해 7월 왕명으로 아산(牙山)으로 이안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발하자 실록을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별진으로 옮겨 온전하게 하였다.

안의가 남긴 수식일기 『임계기사』에는 이런 두 선비의 수직(守直) 상황이 임진년 6월 22일 실록이 처음 내장산에 이안될 당시부터 이듬해인 계사년(癸巳年) 7월 24일 아산에서 충청감사(忠淸監司)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된 것을 말한다. 『임계기사』의 명칭 또한 임진년과 계사년 2년 동안의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록은 지난 420여 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완산지』 「고사」의 기록에 “대개는 한춘이 영정을 등에 지고 곧바로 의주에 도달했다는 것과 오히려 영정을 받들고 옥구를 거쳐 바다를 달려서 의주에 도달했다는 주장, 손홍록·안의가 영정과 실록을 등에 지고 가서 처음에는 내장산에, 두 번째는 아산현에, 세 번째는 강화부에, 네 번째는 묘향산에 이안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로 밝혀질 수 있었다.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가 수직하며 남긴 『임계기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란들인 임진과 정유, 이괄의 난,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의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주요 활동 상황을 기록한 『호남절의록』과 함께 선비정신이 투철한 현재의 정읍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물재 안의는 선비들이 수양해야 하는 덕목을 팔물잠(八勿箴) 형태로 남김으로써 그의 실천적 선비정신의 영향에 따라 현재의 정읍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인한 선비정신을 이은 선비들이 다수 배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의 수많은 의병과 애국지사들이 그들이다. 이것은 그의 스승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실천적 선비정신이 안의와 손홍록 대에 이르러 조

금 더 진보된 실천적 선비정신으로 결실을 본 것으로 이후의 선비들에게도 책임의식과 실천적 선비정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1894년 9월 삼례 기포(起洶)를 시작으로 구국(救國) 운동에 나섰던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지도자 전봉준과 김개남 장군도 이곳 출신이었고,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1906년 이 지역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창의한 병오창의(丙午倡義) 또한 이 지역 정읍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는 점에서 선대의 선비정신이 후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 선비들의 실천적 선비정신은 우리가 본받아 계승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정읍, 내장산, 시록, 안위, 손홍록, 이항, 임계기사, 호남지역

## 1. 서론

선비란 공자가 말한 “마음은 정한 것이 있어야 하고, 꺾힘은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sup>1)</sup>는 절의(節義)와 교양(教養)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해석되어왔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도 『인수대비내훈(仁粹大妃內訓)』을 인용해 선비의 자세에 대해서 “몸을 닦아 행실을 깨끗이 하고 구차한 이득을 바라서는 안 되며, 정(情)을 다하고 실(實)을 다하여 남을 속이는 일을 하여서도 안되고, 의롭지 못한 일을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며, 사리에 어긋나는 이득을 집에 들여놓지 않는 사람”<sup>2)</sup>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선비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부를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의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로부

1) 『孔子家語』, 卷1, 「五儀解」, “心有所定 計有所守”.

2) 『仁粹大妃內訓』(奎章閣所藏本), 卷3.

터 선비는 충의(忠義)의 관념 속에서 예(禮)와 의(義)를 위해 지조(志操)를 지키며 불의(不義)와는 타협하지 않는 정신의 소유자를 선비의 표상<sup>3)</sup>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예와 의를 지키며 사는 청빈한 삶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속의 수많은 유생(儒生)들은 곧은 절개를 지키는 삶보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을 택하여 살았던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고단한 선비의 길을 고집하는 유생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과거의 호남지역 이었다. 이런 호남지역에서도 태인현(泰仁顯) 지역에서는 유독 험난한 선비의 길을 고집하는 이들이 많았다.

과거의 태인현은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과거의 태인현) 지역으로, 어쩌면 호남문화 전반에 걸쳐 형성된 지역적 자(自)문화 현상이 유난히 강한 지역이기도 했다. 태인현의 이러한 자문화 현상은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현상으로 이어져오며 선비문화의 선진적 지역성으로 자리매김 되기도 하였다.<sup>4)</sup>

실제로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지역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풍부한 물산(物産)을 기반으로, 많은 인물이 배출되어 조선 유학(儒學)의 시발지(始發地)이자 호남사림(湖南士林)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하였다.<sup>5)</sup> 이러한 선비문화의 역사적 배경(背景) 속에는 신라 말기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고려(高麗)의 후삼국(後三國) 통일과정에서 후백제 세력에 대한 경계심으로 고려 태조가 차호(車湖) 이남의 호남지방 사람들을 등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그 원인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이전의 정책들이 조금씩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등용자(登庸者)가 적었던 것도 이 지역에서 그 같

3) 全信鎔, 『韓國의 선비문화』, 國際文化財團編, 時事英語社, 1985, 153~178쪽.

4) 이러한 점은 과거 古縣內 즉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일대는 예로부터 君子 鄉이라 불릴 만큼 많은 賢人이 나왔던 배경과 이곳에 유난히 많은 書院과 祠宇, 亭閣, 文化財 등이 각각의 성격과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지역의 지역적 정서를 엿볼 수 있다.

5) 오병무, 「韓國 儒林의 발생과 정읍 태산-최치원의 유상대(流觴臺)를 중심으로-」, 태산 문화조명 학술대회, 우리문화진흥회, 序文 1쪽.

은 문화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지속되던 호남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비 관료적(官僚的)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선비정신(精神)이라는 독특한 문화 현상(現象)으로 자리매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어쩌다 등용(登庸)과 함께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더라도 끝내 관직(官職)을 거절하고 초야에 묻히고자 했던 선비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선비가 바로 과거 태인현의 선비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祿, 1537~1610)이었다.

두 선비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태조의 어진(御眞)과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난시켜 지켜낸 후 이듬해 6월, 선조의 명으로 아산으로 이어지던 2차 피난 길도 자비로 이안을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1596년 다시 아산에서 묘향산으로 이어지던 3차 피난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선조는 두 선비에게 각각 종 6품의 활인서별제(活人署 別提)와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를 제수하였지만, 두 선비 모두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두 선비의 행적들이 학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의 행적마저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관의 단순한 심부름이었다는 자의적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축소 해석을 반영하듯 안의의 14대 후손 재곤(載坤, ?~?)도 선조인 안의의 묘비문(墓碑文)을 기록하며 사실과 다른 기록 오류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본문 2장에서는 선비 안의의 14대 후손 재곤이 남긴 묘비(墓碑)의 비문(碑文)과 『호남절의록』, 『이재유고(頤齋遺稿)』, 등의 기록을 『임계기사(壬癸記事)』와 비교하여 비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탐진안씨 『선대 유사록(先代 遺事錄)』의 기록을 바탕으로 선비 안의의 가계(家系)가 어떻게 태인현에 정착하게 되었지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그동안 학계에 알려졌던 『호남절의록』과 『이재유고』, 등의 기록이 안의가 남긴 『임계기사』와 『완산지』의 기록과는 어떻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큰 공적을 세우고도 자신의 공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선비 안의의 선비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 결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의 정리와 함께 정읍의 선비 안의의 선비정신과 이 지역 선비문화의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勿齋 安義의 碑文과 家系 분석

### 2.1. 勿齋(勿齋) 안의(安義)의 묘비문(墓碑文)

勿齋(勿齋) 안의의 묘비(墓碑) 비문(碑文)은 안의의 십사대 후손 재곤(載坤?~?)이 남긴 것으로, 필자는 2001년 초반 이 비문(碑文)과 『임계기사(壬癸記事)』를 발견하고, 지역 한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2011년이 되어서야 『임계기사』 원문(原文) 전체를 해석(解釋)해 낼 수 있었다.

안의의 후손 재곤이 남긴 안의의 비문은 안의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아 현재의 정읍시 옹동면 지역에 선조가 내려준 사패지(賜牌地) 위에 조성된 묘역 위에 세워진 비석에 기록된 비문이다. 안의의 이 비문 또한 전체 내용을 후손들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필자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역시 지역 한학자<sup>6)</sup>들의 도움을 받아 비문 전체를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은 안의의 십사대 후손 재곤이 남긴 묘비 전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필자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墓碑文 解釋을 위해 정읍의 書藝家 枳菴 柳昇勳 선생을 비롯해 한학자 연구가 金秉晁 선생 등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原文을 解釋할 수 있었다.



<도판 1, 勿齋 安義 묘역>



<도판 2, 安義 墓碑 文>



<도판 3, 『임계기사』 표지>

① 물재 안공 의, 의인 행주은씨 지묘

가만히 듣건대, 충효의 가문에서 그러한 인물이 계속 배출되고 문학의 가문에서 또한 그러한 재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치가 참으로 그러한가? 우리 선조의 성은 안이요, 휘가 의이며 아명은 충렬이요, 자는 의숙, 물재는 호이다. 탐진은 본관이다. 증시조 휘 원린은 고려조의 정당문학 탐진균으로 시호는 문열공이다.<sup>7)</sup>

7) 勿齋 安公 義, 宜人 幸州殷氏 之墓, 竊聞忠孝之門 續出其人 文學之家 亦出其才 理固然耶, 惟我 先祖姓安諱 義初諱忠烈 字宜叔勿齋其號也 耽津亦其貫也中世有諱元

② 그 세 아들에 이르러서 장자는 휘가 우이며 평장사로 오성 군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충공으로 승의전에 배향됐다. 둘째 아들 예는 상장군이요 막내 복은 좌 현남이다. 공은 오성 군의 8대손이다. 고조는 휘가 기이며 호는 평촌이다. 원종공신으로 참여했다. 관직은 평안도 안찰사인데 이때 정국이 돌변하여 두 아우 고는 소와 더불어 남쪽 김제에 은둔하였다. 예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부인은 정경부인 남양방씨로 합장하였다. 삼남을 두었는데 휘 맹의와 고창 현감 중의와 곡산부사 계의이다.<sup>8)</sup>

③ 휘 지의 호는 고은이요 관직은 집현전 예문관 대제학으로 시호는 문정이다. 휘 일의 호는 소고인데 은거하여 벼슬을 하지 않았다. 증조는 휘가 계의로 원종공신으로 행복부령에 나아갔다. 조부 휘는 관으로 참봉이며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부친의 휘는 양언이고 벼슬은 주부이다. 부인은 전의이씨이다.<sup>9)</sup>

④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바로 안공이다. 공은 가정 연간 기축년(1529) 12월 6일 태인의 백천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으며 장차 수업받기를 일제 이항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문은 성리학을 전공하였으며, 뜻은 유학에 세우며 효를 독실히 하고 화목을 두터이 하였으며 내행을 굳게 갖추었다.<sup>10)</sup>

⑤ 생각마다 경계하고 성찰하여 마침내 팔물잠을 저술하여 집안의 가르침으로 삼았고, 팔감영을 지어 홀로 임금을 걱정하고 국가를 우려하는데 정성스러워 시를 지어 영탄하였다. 선조조 임진의 난리에 왜놈이 갑자기 들이닥쳐

璘麗朝政堂文學耽津君諡文烈公…

- 8) 及其三胤 長諱 祐平章事 封鰲城君諡文忠公 配崇義殿 次 禮上將軍 次 福左獻納也 公於鰲城爲八代孫也, 高祖諱 起號平村 參原從勳官平安道按察使 時政突變與二弟阜隱 嘯阜 南遷于金堤 贈禮判 配貞敬夫人 南陽房氏 合窆 生三男諱孟 毅 高敞縣監 仲毅 谷山府使 季毅也…
- 9) 諱 止號阜隱 官集賢殿藝文館 大提學諡文靖公 諱 逸號嘯阜 隱而不仕 曾祖諱季毅原從功臣行北部令 祖諱 綰參奉 贈左承旨 考諱良彥官主簿配宜人全義李氏…
- 10) 生一男一女男即公也 生于嘉靖己丑十二月六日泰仁之栢川幼有穎悟異質及長受業于一齋李先生恒之門 學專性理 志立孔門 篤孝敦睦 內行固備矣…

도성이 무너지고 임금이 달아나자 공이 손홍록 공과 함께 크게 의병과 식량과 옷을 모집하였고 몸소 도계운장의 직임을 담당하여 쌀 삼백석과 비단과 포 등의 여러 물품을 모아서 의주의 행재소에 즉시 수송하고 받은 세 곳의 의병 진영으로 보냈다.<sup>11)</sup>

⑥ 곧이어 경기전의 태조 어용과 선대 왕조실록을 30여 마리에 받들고서 정읍 내장산 용굴암에 이안하여 홀로 보호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다른 사고의 소장하던 실록들은 모두 불타 소실되었기 때문에 뒷날 재차 간행될 적에 이 판본으로 말미암아 간행되었다.<sup>12)</sup>

⑦ 또한, 긴장한 가동(하인) 8인을 모아서 각각 의병 진영에 나눠 보내서 자신을 대신하여 달려가 싸우도록 하고, 반란 초기부터 어용과 실록을 모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하고 근면하였다가 이듬해 8월 강서 행재소에 보내었다. 이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중흥에 관한 6 계책을 아뢰자 임금께서 가상하다 여겨 특별히 공은 할인서 별제에, 손공은 사포서 별제에 제수하였으나 벼슬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 모두 귀향하여 강학과 연구를 일리로 삼았다. 병신년(1596) 9월 13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68세였다.<sup>13)</sup>

⑧ 동촌면 수락동 자 좌에 언덕에 장사를 지내고 남천사에 배향되었다. 부인은 의인 행주은씨로 세인의 따님이며 공과 합장되었다. 3남 1녀를 낳으셨는데 장남 광우는 별좌 벼슬이며, 차남 광주는 봉사벼슬이며, 삼남은 광택이다. 딸은 안동인 권서에게 출가했다. 옛 묘갈명이 희미하게 멸실되어 이제 고쳐 세우려 할 때 나에게 고쳐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문장력이 없는 사람이

11) 惟念仁警省 遂著八勿箴 以爲庭下之訓 作八感詠 獨拳仁於忠君憂國 發之咏嘆也 宣祖朝龍蛇之亂 倭寇猝至 都城淪沒 大駕播西 公與孫公弘祿大募義兵 及粟帛 身當都繼運將之任 募米三百斛 及綿布諸物 卽輸龍灣 行在所 半送三義陣…

12) 旋奉 慶基殿 太祖睿容 與 先王實錄三十餘馱 移安于井邑之內藏山龍窟庵 獨保獲全 他殿所藏盡爲灰燼故以後重刊由於是矣…

13) 且募家僮勇健者八人 各分送于義陣 代身赴戰 自變初陪 侍 眞殿 恪勤終始 至翌年八月達江西則 行在所也 乃聯名上疏 陳中興六策 上嘉納之 特 除活人署別提孫公爲司圖署別提居無何俱歸鄉第講劇爲課而以丙申(1596) 九月十三日卒年六十八…

니 어찌 더 서술하겠는가? 공의 공적이 사적에 밝게 드러나 있고, 덕의 가르침이 후손들에게 감화된 것에 느낀 점이 있다. 이하, 하략… (십사대 손 재곤 삼가 기록하다.) 14)

위 안의의 십사대 후손 재곤이 남긴 비문 내용 ①은 그의 선조 안의의 휘(諱)가 의(義)이고, 아명(兒名)은 충렬(忠烈), 자 의숙(義塾), 물재(勿齋)는 호(號)로 중시조(中始祖) 원린(元璘)이 고려의 정당문학(政堂文學) 탐진군(耽津君) 문열공(文烈公)에 봉해져 탐진안씨(耽津安氏)로 분파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②는 안의는 오성군의 8대손이며, 원종공신이 고조 때 정국이 돌변하여 두 아우 고·소와 더불어 남쪽 김제에 은둔하게 되면서 전북 김제에 세거하여 살게 되었던 배경을 밝히는 내용이다.

③은 고조 지의 호는 고은이고, 증조는 원종공신이며, 조부의 휘는 관, 부친의 휘는 양언이고 부인은 전의이씨였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④는 부 양언이 1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안공 의(義)이며, 기축년(1529) 12월 6일 태인(泰仁) 백천(柏川)<sup>15)</sup>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일제 이항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출생설은 고현내(古縣內)를 백천(柏川)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⑤는 생각마다 경계하고 성찰하여 마침내 선비의 실천 덕목 팔물잠(八勿箴)을 저술하여 집안의 가르침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임진년 왜구의 침략

14) 葬于東村面水落洞子坐原 享 藍川祠 配 宜人 幸州殷氏世彥女 合窆 生 三男一女 男 曰 光宇別坐 光宙奉事 光宅 女適 權愨安東人 舊碣之微泐漫漶 今將改堅屬余改撰 余以不文何敢加焉 功有感於公之功烈昭於 史冊德教化於 後昆茲敢 冒僭而如右繼之以銘 … (十四代孫 載坤謹記).

15) 安義의 十四代 孫 載坤은 安義의 출생지를 墓碑에 柏川이라고 표기했다. 과거의 柏川은 현재의 옹동면 비봉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같은 泰仁縣에 속하는 지역이었기는 하지만 耽津安氏『世譜』‘棺’란의 “始居泰仁古縣內(처음 거주지는 태인 고현내)”라는 기록과 ‘義’란의 “卜居柏川”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본래의 본가는 古縣內였지만 賜牌地인 옹동면 비봉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의는 태인 古縣內에서 출생하여 柏川으로 이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으로 도성이 무너지고 임금이 달아나자 공이 손홍록 공과 함께 크게 의병과 식량과 옷을 모집하였고 몸소 도계운장의 직임을 담당하여 쌀 삼백석과 비단, 포 등의 여러 물품을 모아서 의주의 행재소로 수송하고 받은 세 곳의 의병 진영으로 나누어 보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곤은 이들이 스스로 ‘도계운장(都繼運將)<sup>16)</sup>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호남절의록』 안의 행장에서 ‘의곡계운장(義穀繼運將)’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기를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⑥은 경기전의 태조 어용과 선대의 왕조실록을 우마(牛馬) 30여 마리에 싣고 정읍 내장산 용굴암에 이안하여 홀로<sup>17)</sup> 보호하여 온전하게 되었던 내용이다. 이로 인해 다른 사고에 소장하였던 실록들은 모두 불타 뒷날 실록이 재차 재간행될 때 이 판본을 모델로 실록이 재 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안의가 홀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다는 기록은 그가 남긴 『임계기사』에 안의의 단독 수직일수는 174일, 손홍록의 단독 수직일수는 143일이며, 안의와 손홍록이 함께 수직한 수직일수는 66일<sup>18)</sup>로, 이들이 윤번으로 돌아가며 수직을 했거나 함께 수직한 수직일 수는 모두 383일이다. 따라서 안의 홀로 실록과 어진을 지켰다는 기록은 명백한 오류다.

⑦은 왜란 초기부터 어용과 실록을 모시다 이듬해 8월 강서 행재소(行在所)에 보냈다<sup>19)</sup>는 내용과 두 선비가 연명으로 상소하여 조선의 중흥 6계책

16) 勿齋 安義의 후손 載坤이 남긴 이 墓碑의 이 도계운장(都繼運將)에 대한 기록 또한 착오로 보인다. 『湖南節義錄』에 기록된 勿齋 安義의 行狀에는 都繼運將이 아닌 ‘義穀繼運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손홍록과 더불어 ‘義穀繼運將’이 되어 백미와 목화 등물을 募取하여 각 의병 진영으로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17) 이 기록은 명백한 오류다. 문중 후손의 관점에서 선조의 공을 더 높게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8) 김익두 외, 『정읍학창간호』, 이용찬, 「朝鮮王朝實錄」의 初期 避難 科程」-安義의 『壬癸記事』를 중심으로-, 2014, 민속원, 192쪽.

19) 이 기록 또한 착오로 보인다. 『湖南節義錄』의 勿齋 安義 行狀에는 安義가 移安했던 太祖 御眞과 實錄은 癸巳年(1593) 7월 牙山에서 忠淸監司 李山甫에게 인계하고 安義와 孫弘祿은 行在所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을 아뢰자 임금께서 가상하다 여겨 특별히 안공에게는 활인서 별제를, 손공에게는 사포서 별제를 제수하였고, 벼슬에 머문지 오래지 않아 모두 귀향하여 강학과 연구를 일리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계기사』에는 어진(御眞)과 실록(實錄)은 계사년(癸巳年, 1593) 7월 19일, 아산(牙山)에서 충청감사(忠淸監司)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인계하며 24일로 수직 상황이 끝나 있다. 이에 앞서 이산보는 19일, “이들이 자비로 양식과 말을 준비하여 천리길을 호종하여 함께 행재소에 도착하였다.”며 이들의 충정을 상소하여 알렸다.<sup>20)</sup>

따라서 8월 행재소에 보냈다는 내용은 1개월이 늦은 오류다. 특히 “안공은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에, 손공은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를 제수하였고, 벼슬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 모두 귀향하여 강학과 연구를 일리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명백한 오류다. 이 부분은 『호남절의록』 손홍록 행장(行狀)에서도 “조선 조정(朝政)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sup>21)</sup>고 기록하고 있다.

⑧은 안의가 병신년(1596) 9월 13일 향년 68세로 별세<sup>22)</sup>하니 동촌면 수락동 좌측 언덕에 장사 지내고 그 신위가 남천사에 배향되었다는 내용이다. 부인은 의인 행주은씨로 공과 합장하였다는 내용이며, 안의는 3남 1녀를 낳았고, 장남 광우는 별좌, 차남 광주는 봉사(의 벼슬)이며, 삼남은 광택이고 딸은 안동인 권서에게 출가했다는 내용이다.

비문 끝에 후손 재곤은 “옛 비문이 희미하게 없어져 새로 고쳐 짓게 되었는데, 선대의 공적이 사적에 밝게 드러나고, 덕의 가르침이 후손들에게 감화

20) 이용찬, 『耽津安氏 先代 遺史錄』, 耽津安氏鰲城君派 宗中, 2016, 104~105쪽.

21) 김동수 역주, 『국역 호남절의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경인문화사, 2010년, 336쪽.

22) 실록과 어진을 아산을 거쳐 강화부에 이안한 勿齋 安義와 寒溪 孫弘祿은 丁酉 再亂이 발발하기 한해 이전인 宣祖 29年(1596) 日本과 淸國의 강화가 표류하자 다시 江華府로 달려가 實錄과 御眞을 妙香山 普賢寺로 옮기기 위해 內藏山에서 처럼 輪番 守直을 시작하였지만 이미 1年여 동안의 內藏山에서의 風餐露宿으로 病이 들어 급격히 건강이 惡化되어 중도에 泰仁으로 내려와 그길로 이해 9月 13日 별세하였는데, 享年 68세였다.

된 것에 느낀 점이 있어 이 글을 짓게 되었다”고 비문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대의 공적이 사적이 밝게 드러났다”라는 문구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는 안의가 남긴 『임계기사』가 전혀 가치 있는 학술적 자료로 조명받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 또한 기록의 오류로 판단된다.

## 2.2. 勿齋 安義의 家系

안씨의 가계는 본래 당나라 문제(文帝) 때 중국의 서쪽 농서(隴西) 지방의 화족(華族) 중서사인(中書舍人) 이경(李瓊, 또는 李瑗이라고도 함)이 그 아우인 이황(李璜)과 함께 당 헌종(憲宗) 원화(元和) 2년에 우리나라로 건너와 신라 애장왕(哀莊王) 8년, 송악산(松岳山)에 정착하게 되면서 처음 우리나라에서의 시거(始居)가 시작되었다.<sup>23)</sup>

바로 이 시기에 신라에서는 광주(廣州)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고, 두 형제가 이 난을 평정(平定)하니 왕이 나라를 편안(便安)하게 하였다하여 그 공적을 치하(致賀)하고 편안 할 안(安)자로 안씨 성을 사성(賜姓)하니 형 이경(李瓊)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안씨 성이 되었다.<sup>24)</sup>

동생 이황은 후에 철령군(鎭嶺君)에 봉해졌는데, 당시의 철령은 지금의 고성(固城) 지역으로 현재 고성이씨의 시조(始祖)다. 이후 신라 경문왕(景文王) 4년(甲申, 서기 864)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여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는데 안경(安瓊)의 아들 삼형제 지춘(枝春), 엽춘(葉春), 화춘(花春)이 합세(合勢)하여 격퇴(擊退)하니 나라에서 이들의 구국전공(救國戰功)으로 치하하고 큰형 지춘을 방준(邦俊)이라 사명(賜名)하고 죽산군(竹山君)에 봉(封)하니 죽산안씨의 시조이다.

차자 엽춘은 방결(邦傑)이라 사명하고 광주군(廣州君)에 봉하니 광주안씨(廣州安氏)의 시조다. 셋째인 화춘은 방협(邦俠)으로 사명하고 죽성군(竹城

23) 이용찬, 『耽津安氏 先代 遺史錄』, 耽津安氏鰲城君派 宗中, 2016, 16쪽.

24) 이용찬. 前揭書, 17쪽.

君)에 봉하니 죽성안씨의 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죽성안씨는 그 후손이 끊겨 죽성안씨의 자취는 사라지고 없다.<sup>25)</sup>

이후 광주안씨 가문의 십세(十世)에 이르러 홍미(弘美), 자미(子美)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인 홍미는 광주안씨를 그대로 계승하여 현재의 영남지방(嶺南地方) 양산(梁山)과 진양(晉陽), 전북의 남원, 장수 등지에 세거하여 살고 있다. 그의 아우 자미는 고려(高麗) 신종왕(神宗王) 때 보승신호위상호군(保勝神護衛上護君)에 봉해져 순흥안씨(順興安氏)의 시조(始祖)가 되어 훗날 탐진안씨로 분관(分貫)하였다.<sup>26)</sup>

탐진안씨의 시조인 휘(諱) 원린(元璘)은 서기 1324년에 탄생하여 약관의 나이인 18세에 두 형과 문과에 급제하여 탐진군에 봉해졌고, 1417년에 영암(靈巖)과 도강(道康)을 합한 강진현(康津縣)에 세거하여 살았다. 이때 오성군 우(祐)와 상장군 예(禮), 헌납공 복(福), 병판공 현(顯), 의정공 윤기(允基), 찬성공 사종(士宗) 예판공(禮判公) 기(起), 문정공 지(止)와 소고공 일(逸) 삼형제까지 육대에 걸쳐서 약 180여 년 동안 현재의 강진군 성정면 대월리에 거주하며 살았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세조어의(世祖御衣) 소각사화(燒却事禍)가 발생하여 놀란 일족들이 ‘안 터’를 떠나 현재의 정읍시 입암산(笠岩山), 칠보산(七宝山), 고덕산(高德山) 등지로 피신하여 살게되며 정읍에서의 세거가 시작된 것이다.<sup>27)</sup>

물제 안의는 중종 24년인 1529년 태인 고현내(古縣內)에서 태어나 선조 29년(서기 1596년 9월 13일) 68세의 나이로 서거(逝去)하였다. 그의 묘는 태인(泰仁) 수락동(水洛洞, 현재의 정읍시 웅동면 비봉리)의 사패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배위는 행주은씨(幸州殷氏)다. 이곳은 최근 정읍시가 국고를 지원받아 묘역을 성역(聖域)화하였으며, 그의 신위는 현재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소재 남천사(藍川祠)에 배향(配享)돼 있다.

25) 이것은 竹山安氏, 『同淵譜』의 기록을 따름.

26) 이용찬, 前掲書, 17쪽.

27) 이용찬, 『耽津安氏 先代 遺史錄』, 耽津安氏鰲城君派 宗中, 2016, 31쪽.

### 3. 『壬癸記事』의 價値와 선비정신

#### 3.1. 『壬癸記事』의 史料的 價値

『임계기사』는 2017년 3월 31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45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것은 『임계기사』의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2017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여러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다.

『임계기사』는 탐진안씨 문중에서도 대대로 종손에게만 전해져 오던 가보(家寶)였다. 따라서 학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sup>28)</sup> 『임계기사』에는 정읍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임진왜란 당시 경기전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內藏山)으로 이안(移安)하고 당시의 수직상황을 임진년 6월 22일부터 이듬해 선조의 명으로 2차 피난이 이루어지던 계사년(癸巳年) 7월 19일, 아산에서 충청감사(忠淸監司)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인계하고 수직하던 이달 24일까지의 전 수직상황을 기록한 안의의 수직일기(守直日記)다.<sup>29)</sup>

이에 따라 『임계기사』의 모든 기록도 24일로 끝나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피난 과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임계기사』는 필수적인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요 학술적 근거로는 제시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록적 오류들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임계기사』<sup>30)</sup>는 임진년과 계사년 2년 동안 실록이 지켜지던

28) 『壬癸記事』는 2011년 필자가 제26회 전국 향토사 공모 전에 향토사 관련 논문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피난 과정」- 안의의 『壬癸記事』를 중심으로-로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壬癸記事』의 정확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29) 김익두 외, 『정읍학창간호』, 이용찬, 「朝鮮王朝實錄」의 初期 避難 科程」-安義의 『壬癸記事』를 중심으로-, 2014, 민속원, 162쪽.

30) 필자는 2001년 초반 어느 날 정읍의 무성서원과 태산선비문화관 우연히 오가다 태산선비문화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耽津安氏 傍系 後孫 안성렬씨를 만나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壬癸記事』 복사본을 우연히 접하고 그 복사본 한 짚을 얻

역사의 현장(現場)을 오가며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피난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었다.

반면 『호남절의록』은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부터 정확하게 200년 후인 1792년 태인현(泰仁縣)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간행된 사료다. 『이재유고』는 그 이후로도 더 30년 이후인 1822년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에 간행된 기록이다. 따라서 『임계기사』는 초기 피난과정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검토 되었어야 할 중요한 사료였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서 『임계기사』에 대한 학술적 언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임계기사』의 주요 내용은 물재(勿齋) 안의(安義)와 한계(寒溪) 손홍록(孫弘祿)이 윤번(輪番)으로 돌아가며 지키던 수직(守直)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현장에는 누가 다녀갔고 당시의 현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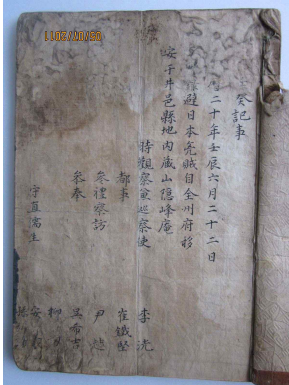
『임계기사』의 첫장 6월 22일 기사에는 실록이 처음 내장산 은봉암으로 이 안되던 상황과 7월 1일 어진이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지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6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이날 이안에 참여했던 인물은 당시의 전라도 관찰겸순찰사 이광과 도사 최철견, 삼례찰방 윤길, 참봉 오희길, 유인, 수직유생 안의, 손홍록 등이다.<sup>31)</sup>

이것은 6월 22일 실록 이안 당시의 최고 책임자는 이광이었고, 도사 최철견과 삼례찰방 윤길, 어진각 참봉 오희길, 실록각 참봉 유인 등이 실록이 이 안될 당시 참여하여 안의와 손홍록의 가솔들이 실록을 옮기고, 안의와 손홍록이 수직하던 상황을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23일도 오희길과 유인이 안의와 손홍록 등과 함께 수직하였다. 하지만 24일부터는 안의와 손홍록의 복수 및 단독 윤번 수직이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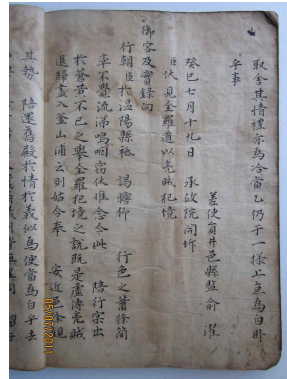
---

게 되어 처음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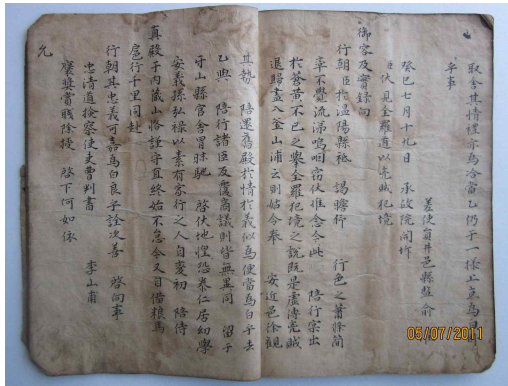
31) 『壬癸記事』: 萬曆二十年 壬辰六月二十二日, 實錄避日本凶賊自全州府移安于井邑縣地內藏山隱峰庵, 時觀察兼巡察使 李洸, 都事 崔鐵堅, 參禮察訪 尹起, 參奉 吳希吉, 柳訥, 守直儒生 安義, 孫弘祿.



<도판 4, 6월 22일 기사>



<도판 5, 7월 9일 기사>



<도판 6, 7월 19일 기사>

『임계기사』에는 실록과 어진이 기사년(1593) 6월 선조의 명으로 아산으로 옮겨지던 상황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임계기사』의 기록에 따르면 실록과 어진이 내장산을 나와 처음 정읍현에 옮겨졌던 날은 기사년 7월 9일로 보인다.<sup>32)</sup> 위의 <도판 5, 정읍현감 유탁>의 7월 11일 상소문

32) 『壬癸記事』: 기사년 7월 9일. 손홍록이 집에 돌아가 행장을 챙김, 차사원 정읍현감 유탁이 선왕 어용과 실록을 정읍현으로 모셔옴, 안의가 함께 모시고 지킴,

에서는 정읍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어떻게 실록과 어진의 수호에 나서게 되었는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사년 7월 11일 배행 차사원(陪行差使員) 정읍 현감(井邑縣監)이 상고(相考)하도록 보고하는 일인.

지난해 변란 초기에 처음 경기전(慶基殿)의 어진(御眞)과 사고(史庫)의 실록(實錄)<sup>33)</sup>을 전주(全州)에서 연전(年前) 6월에 내장산으로 옮겨 봉안할 때 깊고 험한 산골짜기를 찾아 참봉(參奉) 한두 명을 시켜 지키려고 하였는데, 모실 사람이 없다고 하여 학행(學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전임 사또가 명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태인(泰仁) 유학(幼學) 안의와 손홍록 등을 참봉으로 임명하여 한결같이 모시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태조대왕 수용(睟容, 御眞)을 행재소에 옮겨 봉안하도록 하셨거늘 안의와 손홍록 등이 뒤처짐을 온당치 못하게 여겨 스스로 양식과 말을 준비하고 현감인 저와 함께 행재소로 올라가고자 모집에 자원하였습니다. 의리상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정리(情理)와 예절(禮節)이 또한 합당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왔습니다.<sup>34)</sup>

위의 『임계기사』 7월 11일 예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안의와 손홍록의 실록과 어진 수호의 배경도 앞서 살펴본 오희길의 천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임진년 6월 처음 실록이 이안될 당시 실록을 모실 사람이 없어 전임 사또가 학행(學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을 내려 안의와 손홍록

---

구정려가 정읍현에서 맞이함. “還家治行孫 差使員井邑縣監俞濯陪行 先王御容及實錄于本縣 同侍衛守直安義 仇廷呂迎井邑縣”.

33) 이 부분은 원문에 결락이 있어 사실 내용을 추가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34) 『壬癸記事』: 癸巳七月十一日 陪行差使員 井邑縣監爲相考事 前年變初 始以慶基殿自全州 前年六月分 深山幽谷 參奉一二人以侍奉無人是如 有學行智慮人以擇定 亦前使道行下導良 泰仁幼學安義孫弘祿等擇差 實參奉一樣以侍衛爲有在乎 節安義孫弘祿等 亦大王睟容 行在所移安教是去乙等 落後未安 自備糧馬 縣監一時上京爲良結 自募爲去乙等 義不可以取舍 其情禮亦爲洽當乙仍于 一樣上京爲白臥乎事, 差使員 井邑縣監 俞濯.

등을 임시 참봉으로 임명하여 이들이 한결같이 모시고 지켰다는 것이다. 이어 실록이 아산으로 이안될 당시에도 실록과 어진의 뒤처짐을 온당치 않게 여겨 스스로 양식과 말을 준비하여 정읍현감 유태과 함께 행재소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날 『임계기사』에 이어진 기록에서 “[실록과 어진을] 십일일 정읍현에서부터 배행하여 태인현에서 유숙함, 차사원 유태, 참봉 구정려, 안의 손홍록은 집에 돌아가 노자를 준비함.”<sup>35)</sup>의 기록으로 보아 안의와 손홍록은 실록과 어진이 잠시 태인현에 머무는 동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아산으로 이어지던 이안 비용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안의와 손홍록이 아산까지의 이안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였다는 기록은 아산에 도착했던 계사년(1593) 7월 19일의 충청 검찰사 이산보(李山甫, 1539~1594)의 19일, <도판 6, 이산보 상소문>의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이 삼가 보건대, 전라도에 흉악한 적들이 전라도 경계를 침입했다고 하여 어용(御容)과 실록(實錄)을 행재소로 옮기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이 온양현(온양현)에 도착해서 어용과 실록을 우러러 살펴보니, 행색이 초라하고 소략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② 삼가 생각해보니, 지금 어용과 실록을 모시는 행차는 창졸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도가 왜적의 침입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사실이 아닌 소문이며, 흉악한 적이 퇴각하여 부산포(釜山浦)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③ 우선 가까운 읍(邑)에 봉안하고 서서히 그 형세를 살펴보았다가 모셔서 구전(舊殿)에 다시 봉안하는 것이 정리(情理) 상에서나 의리상에서나 온당할 것입니다. 배행한 여러 신하와 여러 번 상의해 보니, 모두 이견이 없어 아산현

35) 『壬癸記事』: 十一日 自井邑縣陪行宿泰仁縣, 差使員 俞濯, 參奉 仇廷呂, 還家治賃 安義 孫弘祿.

(牙山縣) 관사(官舍)에 보관하고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속히 아뢰입니다. 삼가 황 공합니다.

④ 태인에 거주하는 유학 안의와 손홍록은 평소 집안에서 좋은 행실이 있던 자들로 변란이 일어나는 초기부터 내장산에 진전(眞殿)을 모셨는데 정성을 다 하여 부지런히 수직(守直)하면서 시종토록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⑤ 지금 또 자비로 양식과 말을 준비하여 친리길로 호종(扈從)하여 함께 행 재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충의(忠義)가 가상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뢰는 일입니다.

충청도 검찰사(忠淸道檢察使) 이조판서 이산보 아뢰.<sup>36)</sup>

위 예문 ①은 실록(實錄)과 어진(御眞)의 피난은 창졸간<sup>37)</sup>에 이루어진 일이며, 왜적이 전라도의 경계를 침입했다는 소문에 선조가 어용(御容)과 실록(實錄)을 행재소로 옮기도록 명하였다는 것이다.

②는 전라도가 왜적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은 헛소문이며, 왜적이 부산포로 모두 들어갔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③은 실록과 어진을 가까운 읍(邑)에 봉안하였다가 형세를 살펴 구전(舊殿)인 경기전에 다시 봉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이를 위해 아산현 관사에 임시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④는 정음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변란 초기부터 내장산에 어진과 실록을 이안하고, 정성을 다해 수직(守直)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36) 安義『壬癸記事』, 癸巳七月十九日, “承政院 開坼, 臣伏見 全羅道兇賊犯境 御容及實錄 向行朝 臣於溫陽縣 祇謁瞻仰 行色之蕭條簡率 不覺流涕嗚咽 竊伏惟念 今此陪行 實出於蒼黃不已之學 全羅犯境之說 既是虛傳 兇賊退歸 盡入釜山浦云 則姑令奉安近邑 徐觀其勢 還關舊殿 於情於義 似爲使當爲白乎去乙 與陪行諸臣 反覆商議 則皆無異同 留于牙山縣官舍 冒昧馳啓 伏地惶恐 泰仁幼學安義孫弘祿 以素有家人行之人 自變初 陪侍眞殿于內藏山 恪謹守直 終始不忘 今又自備糧馬 扈行千里 同赴付行朝 其忠義可嘉爲白良乎 詮次善啓向事, 忠淸道檢察使 吏曹判書 李山甫”

37) 창졸간(倉卒間) : 미처 어찌할 수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

⑤는 안의와 손홍록이 자비로 양식과 말을 준비하여 천리길을 실록 배행차사원<sup>38)</sup>을 쫓아 이안시켜 함께 행재소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산보가 올린 상소문에는 전란 초기부터의 수직 상황, 그리고 아산현까지의 험난했던 2차 피난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도 이들이 자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런 반면 『호남절의록』의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 오희길(吳希吉, 1556~1623)의 행장에서는 임진년 초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 여러 의문을 낳고있다.

“임진란 때 왜적들이 장차 호남을 침범하려 하니 공이 도내의 명산 중 어용(御容)과 실록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두루 살펴본바 정읍의 내장산 용굴암(龍窟庵)이 옮겨들 만한 곳이었다. 웅치(熊峙)의 싸움에서 패배함<sup>39)</sup> 공은 어용(御容)과 실록(實錄)을 짊어지고 용굴암(龍窟庵)에 들어갔다. 무사(武士) 김홍무(金弘武) 등 삼인(三人)과 승려(僧廬) 희묵(熙默), 산척(山尺)<sup>40)</sup> 등 백여 명을 모집하여 수직케 하였다가, 그 후 옥구로 나아가 서해(西海)를 통해서 용만(龍灣)으로 어용을 봉달(奉達) 하매 선조(宣祖)께서 절하여 곡하고 친히 어진(御眞)을 살펴본 후에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에 봉안(奉安)하였다.”<sup>41)</sup>

위의 1792년 발행본 『호남절의록』의 오희길 행장은 앞에서 본 이산보의 상소문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596년 3차로 실록과 어진이 묘향산 보현사로 옮긴이 역시 손홍록이었다. 『임계기사』에 기록된 오희길의 임기는 임진년 10월 말경 이었고, 신임 참봉이 오던 동년 11월

38) 『壬癸記事』에 나타나는 이 당시의 실록배행차사원(實錄輩行差使員)은 정읍현감 유탁(兪濯)이었다.

39) 『湖南節義錄』, 吳希吉 편, 김익두 외, 『정읍학』前掲書, 173쪽. 『湖南節義錄』의 이 기록은 치명적인 오류다. 그것은 앞서 음력 6월 22일 이미 실록이 옮겨진 후 7월 1일 어진이 옮겨졌고, 이 웅치(熊峙) 전투는 음력 7월 7일과 8일 이들 동안 벌여졌던 일이기 때문이다.

40) 산척(山尺) : 천민으로 산속에 살면서 사냥이나 약초 캐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41) 김동수 역주, 『국역 호남절의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경인문화사, 2010년, 334쪽.

16일 구정려와 교체된 이후에는 어디에도 오희길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기록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유익하고 가치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임진년과 계사년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된 『임계기사』의 실록 이안 일정과 정황을 능가하는 기록이라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특히 7월 7일 치열한 집전을 벌였던 웅치(熊峙) 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실록과 어진을 짊어지고 용굴암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임계기사』에 기록된 실록 이안 일자가 6월 22일 은봉암으로 이어졌고, 7월 1일 어진이 용굴암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기록 오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호남절의록』의 기록에 따라 그동안 정읍 선비들의 행적도 조명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록에 따라 그동안 실록의 초기 피난 과정에 대한 모든 공적들도 모두 오희길 한사람의 기획과 실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치명적인 학술적 오류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호남절의록』의 예문보다 더욱 의문을 갖게 하는 기록은 그로부터도 더 30년 후인 1822년에 간행된 이재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유고(頤齋遺稿)』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에 왜적은 금산군에 들어오고, 그믐 날에 관군이 웅치에서 적을 만나 대패하여 선봉이 부성 가까이 침범하였다는 소식이 들림에, 사녀와 군병이 모두 달아나 숨었다. 이광 등이 또 의논하여 학행과 지려가 있는 두 선비를 가리니 참봉이 아울러 주선했었다. 안의와 손홍록은 태인에서 응모되어 가게 되었다. 공과 유인, 김홍무, 안의, 손홍록, 한춘 등과 함께 먼저 실록을 옮기는데, 궤 속에서 꺼내어 보자기로 쌓았다. 7월 9일에 또 어용(御容)을 옮기는데 굴대의 끝에 달린 구슬 및 유소(流蘇: 다섯 가지 채석 깃털로 된 장식물)와 보자기 궤와 영정의 축 위 1자쯤과 양쪽의 곁 1치쯤을 각각 제거하고 유지(油紙)로 싸서 모두 가볍고 간편하게 하는 데에 힘썼다. 아울러 제사에 쓰는 은기(銀器)와 사각(史閣) 안에 있는 『고려사(高麗史)』와 『형지안(形止案)』 등 여러 서책을 50여 바리에 싣고 가는데, 실록을 먼저 용굴암에 안치하고 어용을 다음에

함께 봉안하였다. 실록은 얼마 아니하여 은적암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더욱 험절한 곳을 골라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기었다. 9월에 용골암에서 어룡을 옮겨 다시 실록과 함께 모시었다.”<sup>42)</sup>

위의 예문에서도 웅치에서 적을 만나 대패하고 적이 부성가까이 접근하자 이광 등이 논의하여 그 창졸간의 상황에서 실록과 어진의 피난을 위해 학행과 지려가 있는 선비를 응모하게 되었고, 이때도 오희길의 주선으로 안의와 손홍록이 응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웅치 전투는 7월 7일이었고, 위의 7월 9일 어진이 옮겨졌다는 기록도 역시 7월 1일 내장산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임계기사』에 수록된 계사년(癸巳年) 7월 11일 정읍현감(井邑縣監) 유탁(兪濯)의 상소문과 뒤에서 살펴볼 19일 충청 순찰사 이산보의 상소문 내용에서도 정확한 일정들이 나타난다. 아래 예문 또한 1822년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이재유고』에 기록된 임진년 6월, 실록 피난(避亂)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① 임진년 4월 왜적이 크게 몰려오고, 5월에 공의 벼슬이 만기가 되어 마땅히 물러가야 하는데, 대소사 간에 마음이 흩어져 굳은 뜻이 없음을 살펴보고, 바로 그 날로 부관에게 달려가 본도 도순찰사 이광, 부사 최철건, 본부 부윤 권수, 본부 제독관 홍기상, 삼례 찰방 윤길, 참봉 유인 등과 함께 병사(兵事)를 의논하였다. 또 전주 사람 전 도사 이정란과 함께 활쏘기를 익히며, 드디어 의병을 규합할 계획을 세워, 바로 무예 있고 날쌔 사람 백여 명을 모아 부윤 권수에게 맡기었다. 이때 경기전에 여러 임금의 실록이 전주부 중에 있는데, 이광 등은 처음에는 사각(史閣) 밑을 파서 실록을 묻으려 했으나, 갑자기 본도

42) 黃胤錫, 『頤齋遺稿』, “六月 賊入錦山郡 晦日 官軍遇于熊峙 大敗至報 先鋒浸薄府城下 士女軍兵鳥獸竄 洸等又議擇儒士有學行智慮者二人 竝參奉周旋 而安義孫弘祿自泰仁 應募赴之 公及詔 乃與弘武弘祿及春等 先移實錄 將袱袋櫛各去之 七月九日 又移御容 將軸端玉飾 及流蘇袱櫛 以至軸上尺許 兩傍寸許各去之 裏以油芭 俱務輕約 并祭用銀器及史閣中高麗史形止案諸帙五十餘馱以行 實錄首安龍窟 而御容以次偕安 實錄尋移隱寂 再相尤險絕處 移飛來庵 九月 自龍窟移御容 復偕實錄安焉”.

방어사 광영이 경상도 금산현(현재의 금천)에서 잡힌 왜적의 장중에 성주사고 보관 사각에서 약탈한 실록 두 장이 들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크게 놀라 땅에 묻는 것이 상책이 아님을 깨달았다<sup>43)</sup>

② “나는 진전관이니 어용 하나를 잃어지고 마땅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목숨을 걸 것이나, 실록은 나의 직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로써 미루어 보아 다른 곳에 소장한 실록은 이미 병화를 입은 듯하니, 깊은 산에 옮겨 보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또한 안치할 곳이 없으리오? 하물며 나는 일찍이 성상의 포상을 입었는데도 보답할 길이 없더니, 바라건대 아울러 실록을 받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가, 다행히 온전히 보존된다면 만에 하나의 보답이 되겠다. 그리고 옛사람이 책을 감추는 데에는 명산과 고층과 북벽의 세 가지의 방책이 있었으니, 그 일은 비밀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 단군으로부터 삼국시대까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반드시 병화로 없어진 것이니 더욱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광 등도 그렇다 하고 공에게 한 도 전체의 깊은 산중 험하고 궁벽진 곳을 두루 찾으라고 부탁하였다.<sup>44)</sup>

위의 예문 ①이 밝히고 있는 내용은, 전라도(全羅道) 순찰사(巡察使) 이광(李光) 등이 처음에는 경기전(慶基殿)의 실록각 밑을 파서 실록을 감추려 하였으나 경상도 금산현에서 붙잡힌 왜적의 품에서 성주사고 본 실록 2장이

43) 黃胤錫, 『頤齋遺稿』: “壬辰四月 倭賊大至 五月 公官滿堂去 顧大小渙散 莫有固志 乃曰赴府館 與本道都巡察使李洸 都事崔鐵堅 本府尹權亨 本府提督官洪麒詳 三禮察訪尹尙 及僚官柳訥等 共議兵事 又與府人前都事李廷鸞俱習遠射 遂有糾義計 因募呈才人驍勇者百餘名 以屬燧 時本殿及列朝實錄 竝在府中 洸等 初欲就史閣中板下埋安實錄 俄聞本道防禦使郭嶸 所捕倭賊於慶尙道金山縣者 裝中有所掠星州史閣實錄二張 咸愕然覺埋安非計.”

44) 黃胤錫, 『頤齋遺稿』: “公曰 我乃眞殿官 御容一本 正當負抱跋涉 死生以之 若實錄非職 然今以此推之 他處所藏 必已被燹 不可不移安深山 亦安可無所處置 況我曾蒙聖褒 報効無地 願并奉實錄 死則死耳幸而獲全 則庶報萬一也 因曰古人藏書 有名山古塚複壁三策 其處事實矣 我東史家 自檀君至三國無存 此必兵火所滅 尤不可不念也 洸等 以爲然 屬公遍求一道深山險絕處.”

발견되어, 실록을 땅에 묻는 것이 상책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②는 경기전 참봉(參奉) 오희길(吳希吉)의 계책에 따라 순찰사 이광이 명령을 내려 그 창졸간의 상황에서 전라도 전체의 깊고 험한 궁벽진 곳을 두루 찾으라고 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임진년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피난 과정을 발로 뛰며 두 선비의 행적을 조사했던 전주의 향토사학자(鄕土史學者) 작촌(鵲村) 조병희(趙炳喜, 1913~2003)는 그의 저서 『完山 고을의 脈搏』을 통해서 실록 이안 초기의 이런 『이재유고』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의, 손홍록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종질 손승경과 더불어 숙의한 끝에 임진년 벽두에 가동(家童) 십여 명을 이끌고 전주로 달려와서 창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던 경기전 참봉(參奉) 오희길(吳希吉), 유인(柳諷) 등을 설득하여 짐을 꾸리고 나니 실록과 본조문기(本朝文紀)가 30 여태(餘馱)요, 고려사 기문과 기타 전적 등이 20여 태의 분량이었다. 또한, 별도로 경기전에 봉안되어 있는 어용도 장차 옮겨야 했다.<sup>45)</sup>

하지만 조병희의 이런 지적도 앞서 언급한 『이재유고』의 기록을 뒤집을 수 없었고, 안의와 손홍록이 실록과 어진을 정음 내장산으로 피난시켰던 역사는 420여 년 동안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처음 『임계기사』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들도 조금씩 조명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 전주시와 전주문화원이 전주와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지리지 『완산지(完山誌)』의 한글 번역서인 『완역(完譯) 완산지』를 펴내며 이전까지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났다. 『완역 완산지』에는 앞서 소실된 『경기전의(慶基殿儀)』의 기록을 『완산지』에서 「고사(古事)」의 형태로 전하고 있었다. 『완산지』에는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의 봉안사(奉安史)와 관련된

45) 趙炳喜, 『完山 고을의 脈搏』, 韓國藝總 全州支部, 1994, 46~47쪽.

역사적 사실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었다.

『완산지』 「고사」의 주요 내용은 과거 경기전(慶基殿)에서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경기전의』의 기록이 소실되어 그 안에 기록돼 있던 『봉안사적』을 『완산지』에서 「고사」의 형태로 전하고 있던 것으로, 여기에는 위의 『호남절의록』과 『이재유고』의 오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전에 소장하고 있던 『봉안사적』 책자에 이르기를, 임진년 5월에 왜적이 전주성을 포위하자, 태인 선비 손홍록, 안의가 몸소 시퍼런 칼을 무릅쓰고 곧바로 본전에 들어가 영정을 등에 지고 가서 정읍 내장산에 모셨다. 계사년(선조 26, 1593) 6월 적의 세력이 더욱 치성해지자 내장산으로부터 행재소로 옮겨 모시라는 왕명이 있었다. 그리하여 손홍록, 안의와 수복 한춘(韓春) 등이 「태조 어진」을 모시고 아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적의 예봉이 점점 꺾여서 부산으로 퇴각하였으므로, 선조가 명하여 영정을 임시로 아산현관에 봉안하라 하였다.<sup>46)</sup> 손, 안 두 사람은 곧바로 행재소에 도착하여 중홍 6책을 올리니, 선조가 옮겨 여겨 받아들이고 각각 6품직을 주었으나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병신년(선조 29, 1596)에 왜구가 다시 발동하자, 손홍록, 안의가 한춘과 함께 영정을 등에 지고 해로를 따라 곧바로 안주(安州)로 가서, 드디어 묘향산(妙香山)에 봉안하였다. 이해 7월 적병들은 크게 기세가 꺾여 모두 돌아갔다.

46) 『선조실록』 29(1596) 5월 1일(정묘)의 기사다. “예조가 아뢰기를, 충청감사 이정암(李廷翰)의 장계에 ‘경기전의 선왕 수용을 당초에 아산현에 임시로 모셨는데, 이제 서울로 올려보내어 태묘(太廟)의 실내(室內)에 권안하였다가 국내가 평정되거든 의례에 따라 봉안하려 한다’ 하였는데, 봉선전(奉先殿)의 수용도 태묘에 권안하여 한 곳에 옮겨 모시는 것이 더욱 온당할 듯하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시행할 것으로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경기전의 수용을 오래도록 바다 모퉁이의 잔폐(殘弊) 한 고을에 봉안해 두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다. 그러나 집경전의 수용도 禮安에 봉안하였는데, 당초에 각처에 나누어 봉안한 데에도 그 뜻이 있으니, 태묘에 권안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다. 다만 영정의 위아래 軸을 꺾어 접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싸맨 채로 봉안하였다고 하니, 예조의 堂上과 承旨를 두 곳에 나누어 보내어 奉審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시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선조 29(1596) 5월 1일(정묘).

손홍록.안의는 한춘을 행재소에 보내어 일의 형편을 모두 상세히 아뢰었다. 선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태조의 영정을 내가 다시는 뵈 날이 없었겠구나!’ 하고, 특별히 한춘을 경기전 참봉으로 제수하였다. 이에 한춘이 사절하고, 손홍록.안의 두 사람을 시종 모시고 따라다녔던 상황을 아뢰니, 선조가 칭찬하기를 ‘알지 못하겠도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이냐?’ 하였다. 그 뒤 묘향산으로부터 전주에 다시 모셔왔다.<sup>47)</sup>

위 예문은 『완산지』 「고사(故事)」의 전문이다. 하지만 함께 기록된 아래의 예문은 훗날 여러 의견이 엇갈리게 되자 역시 『완산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후대의 판단을 바란다는 문구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한춘이 영정을 등에 지고 곧바로 의주에 도달했다는 것이 한 주장이요, 오히려 영정을 받들고 옥구를 거쳐 바다를 달려서 용만(龍灣, 의주)에 도달했다는 것이 또 한 주장이며, 손홍록.안의가 영정을 등에 지고 가서는 처음에는 내장산에 모셨고, 두 번째로는 아산현에 모셨으며, 세 번째로 강화부에 모셨고, 네 번째로 묘향산에 모셨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장이다. 어떤 이는 평양에서 모셔왔다 하고, 어떤 이는 영변으로부터 모셔왔다고 한다. 여러 주장이 달라서 사실을 알 수 없다. 우선 다 같이 수록하여 후세 사람들의 폭넓은 고찰과 명확한 판별을 기다릴 뿐이다.<sup>48)</sup>

위의 예문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현재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 당시에는 조선 태조의 어진(御眞)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어진을 더욱 중요한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어진 중심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진과 실록은 각각 6월 22일과 7월 1일 내장산으로 옮겨졌지만 안의와 손홍록이 수직하며 지기다 아산으로 이안하여 충청도 순찰사 이산보에게 인계

47) 전주문화원, 『완역 완산지』, 2009년, 신아출판사, 189~191쪽.

48) 김익두 외, 『정읍학 창간호』, 166쪽.

하기까지 실록과 어진은 늘 함께 공존했다. 따라서 어진만을 따로 옮겼다는 기록은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안의의 『임계기사』는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최근 『임계기사』와 함께 안의와 손홍록의 스승이었던 일재 이항(李恒, 1499~1576)과 그의 문하생들의 의병 의거에 대한 연구들은 이전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안의와 동문이었던 건재 김천일 의병장의 구국 의거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 3.2. 勿齋 安義와 井邑의 선비정신

정읍의 선비 안의가 선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가 태조 어진과 실록을 피난하고도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한사코 관직에도 나아가지 않았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앞서 언급한 “학식(學識)이 있고 행동(行動)과 예절(禮節)이 바르며 의리(義利)와 원칙(原則)을 지키고 관직(官職)과 재물(財物)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의 사람”, ‘선비’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읍의 선비정신을 비단 안의와 손홍록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의와 손홍록의 선비정신은 앞서 이 지역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던 명유(名儒) 일재(一齋) 이항의 영향을 받았던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동래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 오봉(鰲峰) 김제민(金齊閔) 등 수많은 문하생들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선비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이항의 제자들과 안의가 조금 달랐던 것은 다른 동문들과 달리 스승 이항의 유지를 스스로 선비의 실천 덕목인 팔물잠(八勿箴)으로 만들어 후대에 이르기까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에서 남다른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필자와 만났던 탐진 안씨 15대 故 안성하 종손은 이 가문에서 어떻게 팔물잠이 전해져 오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2011년 이전까지는 단순히 탐진 안씨 가보로만 전해져 오던 『임계기사』를 필자와 만난 후 정읍시립박물관에 영구 기탁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했다.

그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덕을 베풀고 살아야 복이 온다는 안의 선조님의 가르침은 그가 한사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선행이 훗날 사패지(賜牌地)가 내려져 후손들까지 잘 살수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선 선행이 훗날의 복으로 돌아 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라며 “그래서 ‘팔물잠’은 여전히 우리 집안의 가훈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팔물잠은 탐진 안씨 가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를 추앙하는 선비들 사이에서도 선비가 갖추어야 할 주요실천 덕목으로 과거 태인현에서 실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망언(勿忘言), 남과의 언약을 지켜라.
- 물포노(勿暴怒), 사납게 노하지 말라.
- 물흉주(勿胸酒), 술 마시고 주정을 하지 말라.
- 물황색(勿荒色), 여색에 빠지지 말라.
- 물타사(勿禱祀), 조상의 제사에 게으르지 말라.
- 물열장(勿閼牆), 남의 담장을 기웃거리지 말라.
- 물소족(勿疎族), 일가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
- 물위연(勿爲妍), 건성으로 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말라.<sup>49)</sup>

이런 안의의 실천 덕목이던 팔물잠은 그를 추앙하던 과거 태인현의 선비들이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하는 교훈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탐진 안씨(耽津安氏) 가문에서 팔물잠은 그야말로 종교적(宗敎的)인 교훈으로 남아 대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태인현의 이러한 문화적 현상의 시작은 아마도 그의 스승 이항 때부터 시작되어 그의 제자인 안의와 손홍록 시대를 거치며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해 5년(1613) 인목대비 폐비사건(廢妃事件)에 호남의 칠군자(月峰 金大立, 悟無 金應贊, 寬山 李遠, 天默 李尙馨, 浮休 金堉, 壺岩 宋致中,

49) 이용찬, 『耽津安氏 先代 遺史錄』, 耽津安氏鰲城君派 宗中, 2016, 43쪽.

蘭谷 宋民古)라 불리던 칠광(七狂)도 이곳에서 배출 되었고, 이후 7광에서 김대립, 이상형이 빠지고 김대립의 아들인 김관(金灌)과 김응빈(金應賓)의 삼종질(三從姪)인 김정(金滯), 김급(金汲) 형제, 양몽우(梁夢禹), 김우직(金友直)이 합해진 10명의 십현(十賢)도 바로 이곳 태인의 선비들이었다.

훗날의 10현도 앞선 7광의 계(契)를 추슬러 새로 결계(結契) 자적(自適)하였는데, 이들이 시국(時局)을 개탄(概嘆)하며 자취를 감추고 기자(箕子)의 고사(古事)를 본받아 광인을 가장(假裝)하고 동지(同志)를 모아 유유자적(悠悠自適) 하였던 것도 선비정신이었다.

하지만 후대 선비들의 이런 실천적 삶은 임진왜란 당시 안에서 안의와 손홍록이 실록을 피난 시켜 지키던 상황과는 달랐고, 이 시기는 나라 전체가 전란에 휩싸여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전란에 일제 이항의 제자들 김천일, 송상현, 김제민, 변사정 등 거의 모든 54위의 제자들 대부분이 의병으로 일어나 전쟁의 선봉에 섰고, 임진왜란의 격전장에서 거의 모두가 순국했다.

그렇다면 스승 일제 이항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선비 안의가 선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후학과 가족들에게 그의 팔물잠을 교훈으로 남겼다는 것은 선대의 교훈을 이은 것이고, 이후의 7광과 10현도 이런 선대의 정신을 물려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란의 상황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을 이끌었던 이들도 우리나라의 선비들이었다.

의병(義兵)은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 스스로 조직하여 만들어진 군대’를 말한다. 즉 의병이란 군적(軍籍)을 가지지 않은 일반 국민이 스스로 나라의 변란(變亂) 상황에 맞서 일어나 조직된 민병 형태의 군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국가에서도 자국과 자민족(自民族)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민병이 의병으로 일어나 전쟁에서 자민족을 구했다.

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侵略國)에서는 용병(傭兵)을 모집하여 약소국을 점령한 후 침략국의 자원을 수탈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침략을 당했던 약소국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나약한 군대를 대신해 가족과 자민

죽 백성들을 지켜냈던 역사가 우리나라 의병의 역사이기도 하였다.<sup>50)</sup>

우리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의병의 역사도 그 만큼 장구한 일이었다. 그런 의병사(義兵史)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선비들의 선비정신이었다. 이러한 호남 지역의 선비정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국가체제(國家體制)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것은 국난(國難)의 시기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호남 지역 선비들의 숨은 선비정신이 발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병(義兵)들은 역사적으로도 북쪽과 서쪽, 동쪽에 있는 강대국들의 침략에 맞서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산하(山河)를 지키고 보호해 왔다. 그때마다 가장 많은 의병이 전쟁에 나섰던 지역도 바로 과거의 호남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중 다수의 전투에 태인현(泰仁縣) 지역 선비들이 선봉에서 싸웠다.

우리나라는 북쪽 중국의 침략과 오랫동안 대륙진출을 꿈꾸어오던 섬나라 일본의 오랜 침략의 대상이었다. 양국은 수천 년 동안 약 900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고, 이 때문에 그 침략의 역사만큼이나 호남 지역 의병들의 역사도 장구(長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병 역사와 함께 이 지역 선비들의 선비정신도 장구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선비정신이 19세기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발휘되면서 1906년 병오창의(丙午倡義)가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근대기 애국지사들의 초상화를 그렸던 채용신(蔡龍臣)은 신태인(新泰仁) 화호(禾湖)에서 우국지사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 화개현(和介軒) 김직술(金直述, 號), 국헌(菊軒) 김기술(金箕述), 돈헌(遯軒) 임병찬(林炳贊) 등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춘우정의 부탁으로 칠광의 난곡(蘭谷) 송민고(宋民古)가 그린 칠광도를 모사(模寫)하여 후대로 이었다. 김영상, 김직술, 김기술 등은 모두 1906년 병오창의(丙午倡義)에 분연히 일어섰던 의병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예로부터 태인 지역에서는 선비들이 평시에는 관직

50) 이용찬, 『정읍의 항일의병사』, 정읍문화원, 2015년, 11쪽.

을 마다하고 후학들의 교육에 전념하였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서 전장에 나섰다는 점에서 선대의 선비정신이 후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1906년 무성서원에서 의병오창의(丙午倡義) 역시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이 지역 태인현에서 시작되어 후기의 항일 의병투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태인 의병을 이끌던 이 지역 의병장 돈헌(遜軒) 임병찬(林炳瓚, 1851-1916)과 그의 동지 12의사의 실천적 삶도 이 지역 선대의 선비정신이 올곧게 후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정읍의 선비 물재 안의와 함께 손홍록이 그의 스승 일재 이항의 유지를 받들어 고려 시대 이후 정치적으로 가장 소외돼 있던 전라도 정읍 지역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수호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가 스스로 여덟 개의 절대적인 선비의 수행덕목 ‘팔물잡’을 만들고 몸소 실천하였던 역사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안의의 아명(兒名)은 충렬, 자는 의숙(義塾), 물재(勿齋)는 그의 호(號) 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중종 24년인 기축년(1529) 12월 6일 과거의 태인현 고현내에서 태어나 과거의 백천인 현재의 정읍시 용동면 비봉리로 이거 하였다. 그는 일재 이항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스승의 유지(幽志)에 따라 임진왜란으로 왜구가 쳐들어 와 도성이 무너지고 임금이 달아나자 손홍록과 함께 의병(義兵)과 식량(食糧), 의복(衣服)을 모집하고 스스로 의곡계운장(義穀繼運將)이 되어 쌀 삼백석 과 비단, 포 등 여러 물품을 모아 행재소(行在所)로 보내고 받은 세 곳의 의병진영(義兵鎭營)으로 보냈다.

이후 안의는 손홍록과 함께 전주 경기전의 조선 태조 어진과 선대 『조선왕조실록』을 우마(牛馬) 30여 마리에 싣고 정읍 내장산 용굴암에 옮겨 이듬해 7월 왕명으로 아산으로의 이안까지 험난한 피난 여정을 자비로 해결했다. 이

어 1596년 재차 왜구가 일어나자 와병 중이었던 그는 아산에서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로의 피난을 손홍록에게 부탁하고 그 길로 귀향하여 이해 9월 13일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직일기 『임계기사(壬癸記事)』에는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의 수직(守直) 상황이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임진년 6월 22일 처음 실록이 처음 내장산에 옮겨졌다는 사실과 이듬해 계사년 7월 19일 아산에서 충청감사(忠淸監司) 이산보(李山甫)에게 전달되어 24일 강화도에 피난 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임계기사』의 명칭도 임진년(壬辰年)과 이듬해 계사년(癸巳年) 2년 동안 실록과 어진이 지켜졌던 것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록은 지난 420여 년 동안 시대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전주시와 전주문화원이 전주와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지리지 『완산지(完山誌)』의 한글 번역서인 『완역(完譯) 완산지』를 펴내며 이전까지의 역사가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었고, 『임계기사』의 사료적 가치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완산지(完山誌)』 「고사(古史)」에 기록된 “대개는 한춘이 영정을 등에 지고 곧바로 의주에 도달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영정을 받들고 옥구를 거쳐 바다를 달려서 의주에 도달했다는 주장, 손홍록·안의가 영정과 실록을 등에 지고 가서 처음에는 내장산에, 두 번째는 아산현에, 세 번째는 강화도에, 네 번째는 묘향산에 이안하였다.”는 기록은 안의와 손홍록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가 풍찬노숙(風餐露宿)을 마다 않고 수직하며 지켜냈던 실록과 어진의 수호 역사는 그와 손홍록이 남긴 『임계기사』, 『완산지(完山誌)』 「고사(古史)」의 내용처럼 이안과정 또한 스스로 자비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을 이 지역의 선비정신으로 보았다.

그것은 정읍의 선비 안의의 실천적 삶은 당시까지도 정치적으로는 가장 소외되었던 지역 호남, 그중에서도 가장 저항적 선비들이 많아 호남 사림의 본고장으로 불리던 태인 지역의 선비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런 행적이 다시

한 번 이곳의 선비정신으로 발현된 것이다.

특히 그가 스승 일재 이항의 유지를 받들어 선비들이 수양해야 할 여덟가지 수행덕목을 행동수칙으로 삼아 실천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그가 남긴 실천덕목 ‘팔물잠’이 후대의 선비들에게도 선비라면 꼭 실천해야 할 실천덕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그의 이런 실천적 삶이 그가 스승 일재의 실천적 삶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에서 훗날의 칠광(七狂)과 십현(十賢)도 이런 선대 선비정신이 후대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지역에서 이어지던 선대의 선비정신이 후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구한말의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1906년 무성서원에서 창의했던 병오창의(丙午倡義)로 발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둔헌(遯軒) 임병찬(林炳瓚, 1851-1916)과 그의 동지 12의사의 실천적 삶도 그런 선대의 선비정신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정신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비정신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이후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孔子家語』, 卷1, 「五儀解」  
국가기록원, 『역사 속 기록 사랑이야기』 실록지킴이 오희길.손홍록.안의 편,  
2010.
- 國際文化財團 編, 『韓國의 선비문화』, 時事英語社, 1982.
- 김동수 역주, 『국역 호남절의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경인문화사,  
2010년
- 김기빈, 『한국의 지명유래』 전라.제주편, 1997.
- 全信鎔, 『韓國의 선비문화』, 國際文化財團 編, 時事英語社, 1985
- 김익두 외, 『정읍학창간호』, 민속원, 2014.
- 신기철 · 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5.
- 『인수대비내훈(仁粹大妃內訓) 英祖12(1736).  
安 義, 『壬癸記事』, 1592~1593.
- 양만정 외, 『전라문화연구』, 1988.
- 오한령, 『일제 이항의 생애와 학문』, 1994.
- 『一齋先生續集』 券2 , 「年譜」, 1800.
- 『一齋先生遺集』 1935년, 「年譜略抄」, 성균관대학교본 및 대동문화연구원 영  
인본.
- 이용찬, 『耽津安氏 先代 遺史錄』, 耽津安氏鰲城君派 宗中, 2016.
- 이희권 · 이동희 역주, 『국역 경기전의』, 전주역사박물관, 2008.
- 이희권 역주, 『완역 완산지』, 전주문화원, 2009.
- 竹山安氏 『同淵譜』, 1855.
- 조병희, 「完山高을의 脈搏」, 한국예총 전주시지부, 1994.
- 朝鮮 實錄廳, 『形止案』 仁祖 11, 1633.
-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 최현식, 『신편 정읍 인물지』, 신아출판사, 2007.
- 최현식, 『井邑文化財誌』, 1999.

최현식, 『井邑市史』, 2010.

『일재 이항 선생의 학문·사상과 호국 애족정신』, 일재이항선생 학술대회 자료집 1999.

『湖南誌』, 1925.

『湖南節義錄』 井邑, 泰仁, 古阜 人物編, 正祖 23(1799) 서(序).

『湖南丙子倡義錄』 券 5, 1858.

耽津安氏『世譜』石版本, 1957.

黃胤錫, 『頤齋遺稿』 壬辰倭亂編, 1829.

【Abstracts】

A study on the family and ingyegisa of Muljae  
An-ui

— About the tombstone and vertical diary inside. —

Lee, Yongcha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scholar's practical discipline of Muljae An-ui who worked in Jungup area followed his teacher Iljae Il-hang's instruction. He established 8 absolute self-disciplines in the politically neglected Jungup area, and spent his whole financial estate to practice the essential scholars' attitude with his alumnus Hong-rok Sohn during the period of Imjin Japanese Invas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following historical records: his family documents, his tomb script, his book "Imgyegisa," and the Palmuljam, the 8 absolute self-disciplines.

Through careful examination of his family documents, this study identified his child period name Choongryul, his adult period name Ui-sook, and his nick name Muljae and the fact that he was born in Gohyun-nay, Tae-in in Dec 6, 1529 during Joongjong 24th year. He studied under the guidance of his teacher Il-Jae Ih-hang and when Japanese troop invaded in 1592 and the king ran away, he mobilized volunteer troops with Hong-rok Sohn by following the will of his teacher, and collected three hundreds sacks of rice, silk, and fabrics to send them to the temporary loyal palace and volunteer troop camps. Afterward, he was actively involved in moving Taejo's royal portrait and the "Sillok" the true record of the Yi dynasty with Hong-rok Sohn by the 300 oxcars to the Dragon cave in Naejang mountain located in

Jungup, and in July next year he moved them to Ah-san following the king's instruction. In addition, during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in 1597 he safely moved them to a separate temple building in Myohyang mountain. His book "Imgyegisa" is a documentary record describing these two scholars' faithful serving activities of moving the "Sillok" the true record of the Yi dynasty from Naejang mountain to the hands of Choongchung-do governor San-bo Lee during the whole period between June 22 of 1592 and July 24 of 1593. "Imgyegisa," a book of two year record has been hidden in the history during the 420 years. But the book was finally discovered while tracking back the movement of the "Sillok" and following the record of "Wansanji" The book deserves the historical value because it was published in the politically neglected Jungup area. It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s along with "Honamjuluirok" recording the faithful fighting activities of the volunteer troops and soldiers during the Japanese and Chinese invasion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by following his teacher Il-jae Ih-hang, Muljae An-ui established the 8 absolute practical disciplines of the scholars which must have encouraged the next generation scholars to keep learning and practicing the disciplines to become volunteer soldiers and patriots in Jungup area. It proves well in the history that the leaders of Donghak Farmers' Revolution, Bong-jun Jun and Gae-nam Kim, who encouraged the revolt in Samrye area to save the country, were also originated in Jungup area, and the 1906 year's patriotic fighting movement which started in Moosung private school of this area after the 1905 year's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spreaded into nationwide. Thus, the scholar's practical discipline established by Muljae An-ui in Jungup area must be reconsidered as a valuable cultural inheritance of Korea in modern days.

Key Words : Jungup, Naejang mountain, Sillok, An-ui, Hong-rok  
Sohn, Ih-hang, Imgyegisa, Honamjuluirok,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